2017. 6. 20. [화] 언론보도

파이낸셜 뉴스
2017년 06월 20일 (화)
24면 기업

캠핑을 통해 DMZ일원의 정취를 느끼며 지역경제도 살리는 '2017 나라사랑 DMZ 체험캠프'가 전국 각지의 캠퍼 7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6~18일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 등 연천군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기관광공사 'DMZ 체험 캠프' 성료

전국서 750여명 참여
한탄강 관광지 등서 개최
10월 DMZ 캠프 추가 진행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캠핑을 통해 DMZ 일원의 정취를 느끼며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해 진행한 공정캠핑 '2017 나라사랑 DMZ 체험캠프'가 전국 각지의 캠퍼 7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 등 연천군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이번 켐핑에서는 △공정캠핑왕을 찾아라 △연천 DMZ 투어 △로컬푸드 반짝장터 △DMZ 캠핑요리왕 △별이 빛나는 밤에 버스킹 등 '공정캠핑'과 'DMZ 체험'을 접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공정캠핑왕을 찾아라' 프로그램에서 캠퍼들은 2박3일 동안 연천지역에서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을 경품 추첨권으로 교환받아 마지막 날 경품 추첨식에서 캠핑용품 등을 지급받았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태풍전망대, 연강갤러리, 숭의전 등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연천 DMZ 투어' 프로그램에는 예상보다 신청 인원이 많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할 정도로 캠퍼들 호응이 컸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관광지 방문객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행사기간 제출된 영수증을 합산한 결과 '공정캠핑왕을 찾아라' 프로그램을 통해 연천지역에서 약 1200만원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나라사랑 DMZ 체험캠프' 행사를 오는 10월 13~15일, 10월20~22일 등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 13일 개최되는 2차 행사는 등산과 트래킹의 묘미가 복합된 레저 활동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백패킹(Backpacking) 형식을 도입할 방침이며 마지막 캠프 행사는 연천 한탄강 오토캠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9.8 X 24.0 cm

경기일보

2017년 06월 20일 (화)
11면 기획

자연과 사람 아름다운 공존 꿈꾼다

공존 따뜻한 미래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사무소

'생태계서비스'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서비스)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다. 먹는 물, 마시는 공기, 쉴 수 있는 자연공간, 천연재료, 꿀벌이 수분해 열리는 과일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다. 이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또 필수적이다.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ESP·Ecosystem Service Partnership) 아시아사무소(이하 ESP아시아사무소)는 DMZ 일원을 포함해 도내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세계적 네트워크
DMZ 통해 환경문제 해법 찾기위해 평화누리공원에 둥지
자연 가치·생태계서비스 종합적 연구·조사… 국제포럼 개최
안산 시화호 갈대습지 기반으로 환경개선 사업도 스타트

■ DMZ 생태계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ESP)은 전 세계 85개국, 2천500여 명의 생태계서비스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네트워크다. 이들은 생태계서비스 관련 환경 연구 및 정책이행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선도적으로 환경정책을 연구하거나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한 나라별, 지역별 파트너십 활성화,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실제 현장 모델 구축 등이 있다.

ESP아시아사무소는 다름 아닌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있다. 통일대교를 바라보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9월 경기도와 ESP가 업무협약을 맺어 탄생한 곳이 바로 ESP아시아사무소다. ESP아시아사무소는 DMZ 자연환경을 통해 전 세계가 겪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평화누리공원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서 ESP아시아사무소는 DMZ의 자연 생태계의 가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경기도는 '평화누리길', 'DMZ 민통선 생태탐방길' 등 DMZ 일원을 연결하는 생태관광 '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ESP아시아사무소는 이러한 길들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 DMZ 생태계 재조명하는 '경기도DMZ포럼'

ESP아시아사무소는 '평화를 위한 자연과 사람의 연결'을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연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연이 연결되고 사람이 연결되면 길도 연결된다는 믿음에서다.

이를 위해 ESP사무소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등과 함께 경기도 정책포럼 '경기도DMZ포럼'을 실효적인 정책협의플랫폼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 DMZ포럼은 지난 2012년 이래 DMZ 일원 생태계보전을 위한 정책자문 역할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ESP아시아사무소가 운영에 합류함으로써 DMZ에서 제공하는 자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포럼에서는 DMZ 등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 의견을 나누면서 정책 협의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30일 열린 경기도 DMZ 2차 포럼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포럼으로 연천 중면사무소에서 열렸다. 민간인이 통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민통선 경계선의 최북단에서 열리는 첫 번째 포럼이라 더욱 의미가 깊은 데다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ESP아시아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접경지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생태계서비스 정책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 '생태계서비스 정책 및 자연자본관리' 주제 등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 삭막한 도시에 자연의 향기를

ESP아시아사무소의 주요 생태계관리 지역은 DMZ외에도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국립생태원 등 다양하다. ESP아시아사무소는 이들과 긴밀한 협조, 협력사업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는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꼽히고 있다. 이에 ESP아시아사무소는 안산시의 산업 발전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연환경을 되찾으려 다양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안산 시화호 갈대습지를 기반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소규모로 시작했고 이를 통해 경기만으로 규모가 확산돼 DMZ 내륙을 잇는 것이 현재 ESP아시아사무소의 목표이기도 하다.

허정민기자

2016년 6월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도 DMZ 국제워크숍'

"치열하게 생존하는 자연 지속적인 관심 가져줬으면"

이나무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사무소 소장

-생태계와 공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연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다. 아파트 이웃과 함께 사는 것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타협점을 찾아 살아간다. 자연도 마찬가지다. 자연을 사람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도 살 권리가 있으니까"라고 이해하는 것이 공존의 시작이다. 자연에 대해서는 내가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취득하고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야 한다. 다른 생명체가 사는 공간을 인정해줘야 비로소 '공존'이기 때문이다.

-ESP 아시아사무소 출범 9개월째인데 현재 어떤 것에 주력하고 있나.

지금은 준비단계다. 우리가 처음부터 경기도, DMZ 인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자로 보면 된다. 외부자가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현지인에게 지역을 배우는 게 우선이다. 현재는 지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해 우리 사무소가 지향해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접점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본다. 토론, 포럼, 워크숍 등에 주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독불장군처럼 진행하기보다는 지역민들과 함께 이 단계를 밟고 가고 싶다. 따라서 올해는 지역민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시범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생태계환경을 위해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ESP아시아사무소가 한국에 들어설 때 전 세계가 같이 아시아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DMZ 인근에 사무소를 차렸다. 모두가 자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생태계, 자연, 더 나아가 생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나 아닌 다른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태도가 될 수 있다. 자연 또는 생태계라는 말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다면 자신의 아파트 앞 화단에 핀 꽃을 먼저 봐도 좋다. 계속 지켜보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사랑이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 사대강 녹조가 화제였는데 "'녹조'라는 것이 왜 일어난 걸까" 등의 의문을 가지는 것도 관심의 시작이다. 차열하게 생존하고 있는 자연에 대해 얕더라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허정민기자

34.6 X 48.2 cm